

골프에 나이는 숫자일 뿐 ... 51세 미컬슨 메이저 우승



24일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필 미컬슨(미국)이 두 손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다. 대회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인근 키아와 아일랜드 골프리조트 오션코스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PGA 챔피언십 ... 메이저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 갈아치워 "체력 유지하려 많은 노력, 다른 노장 선수들에 힘이 됐으면"

필 미컬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미컬슨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인근의 키아와 아일랜드 골프리조트 오션코스(파72)에서 열린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총상금 12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82타로 우승했다. 1970년 6월생으로 만 50세 11개월인 미컬슨은 53년 묵은 메이저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메이저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은 1968년 PGA 챔피언십에서 쥘리아스 보로스(미국)가 세운 48세 4개월이었다. 50세가 넘어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미컬슨이 처음이다. 메이저대회가 아닌 일반 PGA 투어에서 미컬슨은 50세가 넘어서 우승

한 7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미컬슨은 2019년 AT&T 페블버치 프로암 우승 이후 멈췄던 우승 시계를 2년 3개월 만에 다시 돌렸다. 통산 우승 횟수도 45승으로 늘었다. 현역 선수로는 82세의 타이거 우즈(미국) 다음이다. 역대 8위에 해당한다. 메이저대회 우승은 무려 8년 만이다. 2013년 7월 디오픈 제패 이후 7년 10개월 동안 메이저대회에서 준우승만 두 번 했던 그는 2016년 디오픈 2위 이후 16차례 메이저대회에서 한 번도 20위 이내에 진입하지 못한 부진을 씻었다.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도 6개로 늘었다. PGA 챔피언십은 2005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이다. 그는 마스터스에서 3차례, 디오픈에서 한번 우승했다. 우승 상금 216만달러(약 24억원)라는 어마어마한 우승 상금보다 더 반가운 건 US오픈 출전권

이다. 이 대회에 앞서 세계랭킹 115위였던 미컬슨은 자격으로 US오픈 출전이 어렵다고 보고 특별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이번 우승으로 자동으로 출전권을 확보했다. US오픈은 다른 메이저대회 우승자에게 5년 동안 출전을 보장한다. US오픈은 미컬슨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 하려면 한 번은 꼭 우승해야 하는 대회다. 미컬슨은 "믿어지지 않는다.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우승하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다른 (노장) 선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체력과 경기력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1오버파 73타를 친 임성재(23)는 공동 17위(이븐파 288타)에 머물렀다. 임성재는 1타가 모자라 톱10에 진입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뛰는 미국 교포 김찬(31)은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둘러 공동 23위(1오버파 289타)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안병훈(30)도 4타를 줄여 공동 49위(5오버파 293타)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KIA, 키움·KT 상대 안방 5연전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내일 없는' 총력전으로 위기 탈출에 나선다. 지난주에도 1승 4패로 후퇴한 9위 KIA가 새로운 한 주 안방에서 5연전을 벌인다. 도쿄 올림픽 예비엔트리 선수단의 코로나19 2차 예방 접종 여파로 25일 경기가 순연되면서 KIA는 26·27일 안방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2연전을 갖는다. 28일부터는 KT 위즈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베팅 끝에 선 KIA는 5월 마지막 주 총력전으로 결과를 내야 한다. KIA는 지난 23일 대구원정에서 박해민의 만루포에 일격을 당하면서 5-7 역전패를 당했다. 이와 함께 올 시즌 전적은 16승 24패(승률 0.400)가 됐다. 5월로 좁혀서 보면 4승 13패, 승률이 0.235로 푹 떨어진다. 나지완, 최형우, 류지혁의 부상이 겹쳤다고 해도 한참 부족한 성적이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다.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와도 1경기 차. 무엇보다 초반 흐름과 달리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6위 LG와도 벌써 5경기 차가 됐다. 시즌 초반이라고 해도 중위권에서 멀어지면 반등은 어렵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패배의식을 지울 수 있는 승리가 필요하다. 절박한 분위기 속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25일 경기를 하루 쉬어가면서 선발 로테이션 고민 없이 선발진에게 많은 이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17골·10도움 시즌 마감 ... 팬들은 행복했다

토트넘, 최종전 승리 EPL 7위

'손세이셔널' 손흥민(29)이 공격포인트 추가에 실패한 토트넘 홋스퍼가 레스터시티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티켓을 쟁겼다. 토트넘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레스터시티와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에서 4-2로 이겼다. 최종전 결과, 이미 우승과 2위를 확정지은 맨체스터 시티(승점 86)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74)에 이어 크리스털 팰리스를 2-0으로 꺾은 리버풀(승점 69)이 3위로 올라선 가운데 애스턴 빌라에 1-2로 패한 첼시(승점 67)가 '톱 4'를 지키면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행 티켓을 품에 안았다. 토트넘에 패한 레스터시티(승점 66)와 사우샘프턴을 3-0으로 꺾은 웨스트햄(승점 65)이 5-6위에 랭크돼 나란히 UEFA 유로파리그(UEL) 티켓을 차지했다. 토트넘은 역전승으로 7위 자리를 지켜내 다음 시즌 처음 시작되는 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 콤비 또 볼 수 있을까? 24일 영국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종 38라운드 레스터시티 대 토트넘 홋스퍼의 경기 종료 후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29)과 해리 케인(왼쪽·28)이 두 손을 마주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7골(10도움)으로 마감하며 득점 랭킹 공동 4위로 시즌을 마쳤다.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과 동물이었던 유럽 단일리그 한국인 최다골 기록(17골) 경신에 실패했다. 시즌 전제로는 개인 통산 최다인 22골을 포함해 17도움을 작성했다. 손흥민의 '단짝' 해리 케인은 정규리그 23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타이거즈, 27일 키움전에서 '광주 유니폼' 입는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광주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온다. KIA가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광주 유니폼' 데이를 연다. 지난해 KIA는 연고팀으로서 자부심을 강조하고 지역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 특별 유니폼을 제작했다. 흰 바탕에 광주의 영문인 'GWANGJU'가 감청색으로 수놓아진 광주 유니폼은 노란색 테두리가 포인트를 줬다. 감청색과 노란색은 모두 광주시를 상징하는 색이다. 유니폼과 함께 출시된 모자 역시 감청색 T 로고



에 노란색의 테두리가 포인트로 들어간다. 유니폼의 어깨와 모자 옆에도 광주 엠블럼이 부착된다. 광주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한 엠블럼은 랜드마크인 무등산 서석대와 챔피언스 필드 이미지를 조합해 제작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